

「중국대외원조 백서」의 주요 내용과 평가

박민숙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 (mspark@kiep.go.kr, Tel: 3460-1145)

박수경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협력팀 연구원 (skpark@kiep.go.kr, Tel: 3460-1074)

차 례 ● ● ●

1. 검토배경
2. 「중국대외원조 백서」의 주요 내용
3. 평가

주요 내용 ● ● ●

- ▶ 2011년 4월 21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대외원조(中国的对外援助) 백서」를 발표함.
- 이번 백서는 국무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중국 최초의 대외원조(ODA)에 관한 보고서로 중국의 대외원조 정책기조, 체제, 원조 수단 및 규모 등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음.
- ▶ 이번 발표된 「중국대외원조 백서」에서는 기존의 대외원조 원칙들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 기본방침을 제시하였음.
- 첫째, 수원국(受援國)의 자주적 발전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둘째,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부과하지 않으며, 셋째, 평등·호혜적인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넷째, 국가의 역량에 맞추어 최선을 다하며, 다섯째, 국내의 정세에 부합하는 개혁과 혁신을 실시하는 것임.
- ▶ 이번 백서는 중국의 원조정책 및 담당기관, 대외원조 자금공여 유형 및 형태, 대외원조 지원수단, 대외원조의 지역별·부문별 분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중국의 대외원조 주관부처는 상무부이며, 각급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해외 주재 대사관도 원조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대외원조 자금은 무상원조, 무이자 차관, 우대차관 방식으로 구분되며, 1950~2009년까지 총 161개국 30여 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2,562억 9,000만 위안(약 396억 달러)이 공여되었음.
-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원조액의 약 80% 이상이 배분되었으며, 부문별로는 공업 분야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음.
- ▶ 중국의 대외원조는 국제 원조규범과 조화, 투명성 제고, 공여국 간 협력 및 조정 강화, 성과 평가체제 구축 등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안고 있으나, 최근 DAC, 일본 등 다른 공여국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어 한국도 중국과의 개발협력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중국 원조집행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사업평가, 공동사업 발굴 및 삼각협력 방식의 원조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함.

1. 검토배경

■ 중국은 지난 4월 21일 대외원조에 관한 최초의 공식 보고서인 「중국대외원조(中国的对外援助) 백서」를 발표함.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자국의 경제가 급부상함에 따라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통한 외교전략을 강화하면서 대외원조를 확대해 왔으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대규모 자금협력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아 왔음.
- 그러나 중국의 원조정책과 방향, 전략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으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간에 공통으로 합의된 원조원칙 및 정책규범과는 크게 다른 중국만의 독자적인 원조방식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음.
 - 특히 중국의 아프리카 시장개척과 자원개발사업 등이 국제 원조질서를 교란한다는 비판과 함께 대규모 차관 제공으로 개발도상국의 채무부담을 가중시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음.
- 중국의 원조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역시 발표되지 않았고, 그 규모는 중국 통계연감의 대외원조 예산지출 항목, 중국 수출입은행의 연차보고서, 재정연감(财经年鉴)의 대외원조 예산지출액 자료를 근거로 추정되고 있어 정확한 파악이 용이하지 않음.
 - 특히 중국 대외원조 사업 중 건설 및 기술협력 프로젝트, 물자공여, 부채탕감, 전문가 파견 등에 대한 사업별 지출금액이 공개되지 않음.
 - 그동안 대외적인 비판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ODA 통계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지원금액이 적은 수원국이 원조종액 압력을 넣을 것에 대한 우려, 둘째, 다양한 지원형태와 지원부처의 다원화에 따른 실태파악 곤란, 그리고 중국 국내적인 소득 및 지역격차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외원조를 실시한다는 것에 대한 비난 회피 등에 기인한 것임.¹⁾

■ 중국의 대외원조 백서 발간은 그동안 구속성(tied) 원조,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독자적인 원조방식, 개도국에 대한 채무부담 증가, 투명성 부족 등 중국 원조에 대한 국제 원조사회의 비난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중국은 백서 발간을 통해 중국의 원조가 가지는 개발도상국 간 협력의 측면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국 원조의 당위성과 서구 원조와의 차별성을 부각할 예정임.
-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원조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적인 지지를 확대하고, 투명성 논란에 대응하고자 하는 시도로 파악할 수 있음.

■ 본고에서는 이러한 배경 아래 「중국대외원조 백서」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검토하고, 백서의 의의와 한계점을 평가하고자 함.

1) 小林 誉明(2007. 10), 「中国の援助政策」, 開発金融研究所 開発研究グループ, 第35号; Lancaster(2007), “The Chinese Aid System,”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2. 「중국대외원조 백서」의 주요 내용²⁾

가. 중국의 대외원조 정책 및 담당기관

- 중국은 호혜주의, 동등성에 기초한 관계, 주권 존중, 내정불간섭, 자력갱생을 주요 원칙으로 이미 1960년대에 대외원조의 기본방침을 발표하였으며, 이번에 발간한 「중국대외원조 백서」에서는 이전의 대외원조 원칙을 토대로 다음의 다섯 가지 기본방침을 제시함.³⁾
- 대외원조 정책의 기본방침은 ① 수원국(受援國)들의 자주적 발전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② 내정불간섭 원칙에 따라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부가하지 않으며, ③ 평등·호혜적인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④ 국가의 역량에 맞추어 최선을 다하며, ⑤ 국내외 정세에 부합하는 개혁과 혁신을 실시하는 것임(표 1 참고).

표 1. 중국 대외원조 정책의 다섯 가지 기본방침

기본방침	주요 내용
자주적 발전능력의 강화 (坚持帮助受援国提高自主发展能力)	- 수원국의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 및 기초인프라 건설 지원, 자원 개발 및 활용을 통한 발전기반 조성에 협조, 자력갱생 및 독립적 발전 지원
내정불간섭 원칙 고수 (坚持不干涉任何政治条件)	- 수원국이 스스로 발전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존중, 원조 제공을 빌미로 내정을 간섭하거나 정치적 특권을 얻으려 하지 않음
평등·호혜적인 공동발전 (坚持平等互利, 共同发展)	- 대외원조를 개발도상국 간의 상호원조로 간주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중시하며, 상대방의 이익 제고를 도모함 - 기타 개도국과 경제기술 협력을 통해 양국이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윈윈(win-win)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
국가의 역량에 맞추어 최선을 다함 (坚持量力而行, 尽力而为)	- 대외원조 규모와 방식에서 중국은 자국의 현재 상황과 국력에 기초하여 최대한의 원조를 제공할 것이며, 수원국의 실제 수요를 최대한으로 만족시키는 데 주력
국내외 정세에 부합하는 개혁과 혁신 (坚持与时俱进, 改革创新)	- 중국은 국내외 정세와 발전 변화에 순응하여 모든 종합적인 경험을 토대로 창의적인 대외원조 방식을 채택함

자료: 「중국대외원조(中国的对外援助) 백서」(2011. 4. 21).

- 중국은 1960년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대외원조 업무를 담당하는 최초의 기관인 ‘대외경제연락총국(對外經濟聯絡總局)’을 설치하였으며, 이후 1982년 대외경제무역부, 1993년 대외무역경제협력부(MOFTEC: 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를 거쳐 2003년 현재의 상무부가 중국의 대외원조

2) 이하의 내용은 2011년 4월 21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대외원조 백서」의 내용을 참고함.

3) 중국의 원조정책은 1964년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의 아시아·아프리카 방문 시 제시된 ‘중국 대외경제기술원조 8개 원칙’에서 구체화되었음. 이 원칙에서는 평등 및 상호호혜에 근거한 공동의 이익과 발전, 내정불간섭과 정치적 조건 없는 지원, 수원국의 자력발전 지원 등이 기본입장으로 제시되었음.

와 무역, 국제경제 협력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 현재 대외원조 주관부처인 상무부는 △ 대외원조 정책의 입안 및 집행 △ 대외원조 관련 법률 및 법규 초안 작성 △ 국별 원조계획 및 연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함.

표 2. 중국의 대외원조 관련 기관별 정책과 법규

기관	연도	명칭
재정부/ 대외경제무역부	1992	각종 형식의 대외원조자금 관리방법(多種形式援外專項資金管理辦法)
재정부	1998	대외원조 지출 예산자금 관리방법(對外援助支出預算資金管理辦法)
		대외원조 합자 협력사업자금 관리방법(援外合資合作項目基金管理辦法)
대외무역경제합작부	1998	원조물자 검사 및 관리방법(시행안)(對外援助物資檢驗管理辦法)
		대외원조 건설사업 품질검사 평정 및 검수방법(對外援助工程質量檢驗評定及檢收辦法)
		대외원조 건설사업 기술자료 관리방법(對外援助工程施工技術資料管理辦法)
상무부	1999	대외원조 사업 상벌적용 방법(對外援助項目獎懲辦法)
	2004	대외원조 플랜트사업 시공회사 자격인증 방법(對外援助成套項目施工任務實施企業資格認證辦法)
		대외 물자원조사업 제공기업 자격인증 방법(對外援助物資項目實施企業資格認證辦法)
		대외원조 사업 청소년 자원봉사자 파견 및 관리를 위한 잠정 법안(援外青年志願者選派和管理暫行辦法)
	2005	대외원조 사업 추진을 위한 상무부의 의견(商務部關於進一步加快對外援助實施進度的意見)
		대외인재 양성 지원사업 실시 및 관리를 위한 잠정적인 내부규정(對外援助培訓項目實施管理內部暫行規程)
	2006	대외 물자원조사업 관리방법(잠정안)(對外援助物資項目管理暫行辦法)(暫行)
		대외원조 플랜트사업 안전관리방법(援外成套項目安全生產管理辦法)
		대외원조 플랜트사업 시찰 및 설계 입찰 심의방법(對外援助成套項目考察設計評標辦法)
		대외원조 사업 입찰 심의결과 공시 및 의문사항 처리에 관한 상무부의 규정(시범안)(商務部關於援助項目評標結果公示和質疑處理的規定)(試行)
	2008	대외원조 플랜트사업 관리방법(시범안)(對外援助成套管理辦法)(試行): 2009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

자료: 黃梅波·胡建梅(2009), 「中國對外援助管理體系的形成和發展」; 권 울·박수경(2010), 「중국의 대외원조 정책과 추진체제」에서 재인용.

- 중국 대외원조는 상무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지방정부가 원조의 성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표 3 참고).
- 원조사업 참여주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무부는 2008년 외교부, 재정부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정식으로 ‘대외원조기구(對外援助部联系机制)’를 설립하였으며, 2011년 2월에는 이를 ‘대외원조조정기구(對外援助部际协调机制)’로 격상함.

표 3. 대외원조 담당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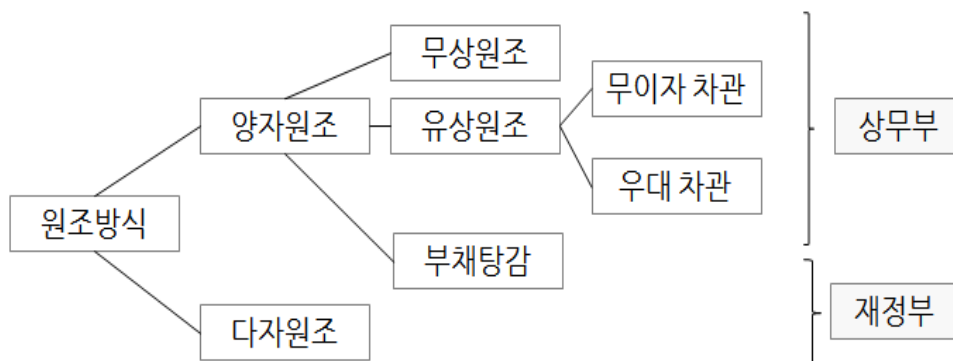
부서명		주요 업무
상무부		- 원조정책의 입안, 규정 제정, 프로젝트 심사비준 등
상무부 부속기관	국제경제협력국	-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해외자원 개발, 투자, 국제계약 등
	국제경제기술교류중심	- 수원국과 기술협력
	국제상무관원연수학원	- 물류 및 인재훈련
해외주재 대사관		- 수원국 내 원조요청기구로서 역할
외교부		- 외교정책과 관련된 원조정책 및 목적을 제시 - 긴급구조 및 인도주의 원조 관련 업무 담당
재정부		- 양자간 원조 중 채무탕감과 다자원조를 담당
지방정부		- 상무부와 협의하에 지방정부 관련 프로젝트 시행
수출입은행 ⁴⁾		- 정부의 지도하에 우대차관 제공

자료: 「중국대외원조 백서(中国的对外援助)」(2011. 4. 21); 권 울 · 박수경(2010), 『중국의 대외원조 정책과 추진체제』.

나. 대외원조의 자금공여 유형 및 형태

- 중국의 원조형태는 기본적으로 다른 공여국과 유사하게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구분되며, 양자간 원조는 무상원조(물자공여, 연수, 세미나 개최, 기술협력 등)와 유상원조(무이자차관 및 우대차관) 및 부채탕감으로 구분됨.

그림 1. 중국의 대외원조 지원방식



자료: 권 울 · 박수경(2010), 「중국의 대외원조 정책과 추진체제」.

4) 중국 수출입은행은 1994년 4월에 설립된 국무원 직할의 정책금융기관으로 1995년부터 우대차관 운용(사업 심사, 실행, 채권관리, 원금 및 이자 회수)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대차관 이자율은 보통 2~3%로 기준금리보다 낮게 제공됨.

- 중국의 대외원조는 총 161개 국가 30여 개 국제기구에 지원된 액수는 1950~2009년 누계 기준으로 2,562억 9,000만 위안(약 396억 달러)에 달함.⁵⁾
- 대외원조 유형별 제공 규모는 무상원조 1,062억 위안(41.4%), 무이자차관 765.4억 위안(29.9%), 우대차관 735.5억 위안(28.7%)임.⁶⁾
 - 무상원조 자금은 병원, 학교, 주택, 용수공급 등 사회인프라 건설과 인력훈련, 기술협력, 물자공여, 인도주의 원조 등에 지원되었음.
 - 무이자차관은 공공시설 및 경제기반건설에 지원되었으며, 차관의 상환기간은 무이자차관의 경우 20년, 우대차관은 15~20년임.
 - 우대차관은 중국 기업이 해당사업을 수행하고, 필요 설비를 공급하는 구속성(tied) 원조형태로 시행되며, 부문별로는 경제 하부구조에 대한 원조비중이 전체 우대차관의 61.0%로 가장 높고, 공업과 에너지·자원개발 분야에 각각 16.1%, 8.9%가 지원됨.

표 4. 우대차관의 부문별 비중

경제기반시설	에너지·자원개발	공업	농업	공공시설	기타	합계
61.0%	8.9%	16.1%	4.3%	3.2%	6.5%	100.0%

주: 1) 우대차관은 2009년까지 76개 국가의 325개 프로젝트에 제공됨.

2) 1950~2009년 말 누적수치.

자료: 「중국대외원조 백서」(2011. 4. 21)

- 중국의 대외원조는 양자원조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다자원조 방식을 확대함에 따라 국제원조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은 개발도상국 간 협력(남남협력)의 일환으로 유엔개발프로그램(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과 1981년 ‘기술개발협력(TCDC: Technical Coope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2009년까지 20여 년 동안 총 6천여 명의 인적자원 개발사업에 참여함.
- 또한 1996년부터 국제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와 협력하여 2009년까지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2개 국가에 7백여 명의 농업전문가를 파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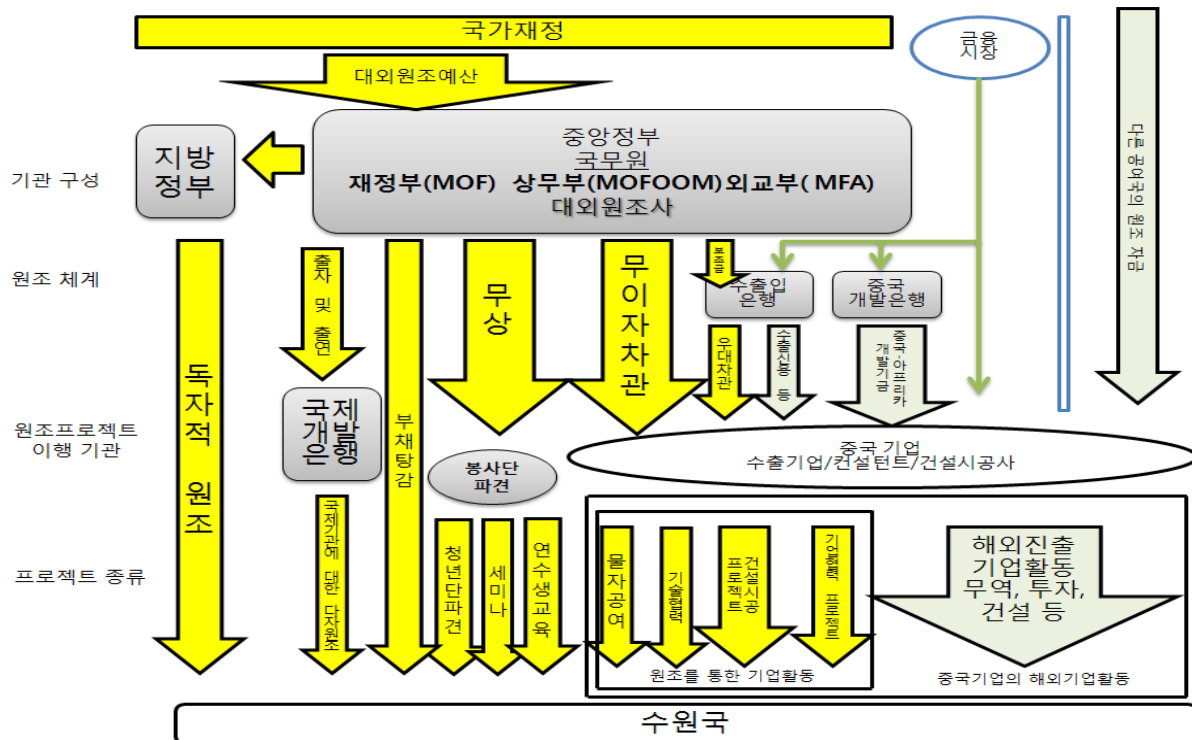
다. 대외원조 지원방식

- 중국의 대외원조는 다음의 여덟 가지 지원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
- 중국의 원조형태와 지원수단은 다른 공여국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며, 특히 정부가 이자를 보조하는 우대차관을 활용한 지원이 특징적임.

5) 중국의 대외원조는 특히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크게 성장하여 연평균 29.4%의 증가율을 보임.

6) 각각의 금액은 2009년까지 누계기준이며, () 안의 수치는 전체 공여액 중 각각이 차지하는 비중임.

그림 2. 중국의 원조체제



자료: Kobayashi(2008); 권 올 · 박수경(2010), 「중국의 대외원조 정책과 추진체제」에서 재인용.

① 플랜트 사업

- 플랜트 사업은 대외원조의 주된 지원방식으로 무상원조와 무이자차관을 활용하여 수원국의 산업시설과 경제 하부구조 건설을 지원함.
- 플랜트 사업부문에 대한 원조는 1954년 북한과 베트남에 철도, 도로, 항구 등 인프라 시설 복구를 지원한 것을 시초로 현재는 건설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어 대외원조 지출의 약 40%가 이에 해당하며, 부문별로는 공공시설과 공업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음(표 5 참고).

표 5. 주요 원조사업의 플랜트 사업 분야

산업	프로젝트 수	산업	프로젝트 수
농업	215	공업	635
농업, 목축업, 어업	168	경공업	320
수자원 관리	47	방직업	74
공공시설	670	무선전자	15
회의장	85	기계공업	66
체육시설	85	화학공업	48
극장, 영화관	12	목재가공	10
주민이용건물	143	건축자재가공	42
정부청사	37	금속공업	22
우물	72	석탄공업	7

표 5. 계속

산업	프로젝트 수	산업	프로젝트 수
학교, 병원	236	석유공업	19
경제기반시설	390	지질광산탐사	12
교통	201	기타	115
전력	97	-	-
방송, 통신	92	-	-
총계			2,025

주: 1) 우대차관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

2) 1950~2009년 말 누적수치.

자료: 「중국대외원조 백서」(2011. 4. 21).

② 물자공여

-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가장 먼저 활용된 대외원조 지원방식으로 단순한 물자제공 외에 플랜트 사업에 따른 설비제공도 포함됨.
- 주된 물자공여품은 생활용품, 기계설비 및 관련 서비스, 의료설비, 식품, 의약품 등 다양함.

③ 기술협력

- 중국정부가 수원국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인프라 및 산업시설의 생산·운영 혹은 유지를 위해 기술 관련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기술협력은 수원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는 원조방식의 하나로 공업생산과 관리, 농작물 재배, 방작자수 등 수 공업 생산, 문화교육, 체육훈련, 보건, 청정에너지개발 등의 분야에 지원됨.

④ 인적자원 개발

- 공무원 연수, 학위프로그램, 전문기술 연수 및 기타 인적교류 등에 대한 원조로 1953년부터 2009년까지 4천여 개의 기술훈련 과정이 운영되고 있음.
- 경제, 외교, 의료보건, 환경 등 20개 분야에 12만 명의 훈련생이 있으며, 2009년 현재 개발도상국에서 초청된 기술훈련 인원은 1만 명에 달함.

⑤ 의료팀 파견

- 수원국에 의료종사자를 파견하여 일부 의료설비와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조 형태임.
- 1963년 알제리 파견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중국의 해외파견 의료인 수는 2만 1천 명이며, 2009년 기준 60여 개 의료단의 의료인 1,324명이 57개 개발도상국의 130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⑥ 인도주의적 원조

- 해일,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 긴급물자를 제공하고 구급대 및 의료진 파견, 현금을 제

공하는 원조형태임.

- 최근 중국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확대하고 있으며, 2004년 9월에 정식으로 '인도주의 긴급구조단(人道主义紧急求灾援助应急机制)'을 구축하고 최근 5년간 약 200건의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함.
-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발생하자 중국은 사상 최대지원액인 7억 위안을 제공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 동남아 국가의 조류독감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긴급 기술원조 △ 기니비사우의 황재(蝗災) 및 콜레라, 에콰도르의 뎅기열, 멕시코의 신종 플루, 이란·파키스탄·아이타칠레의 지진, 마다가스카르의 허리케인, 미얀마쿠바의 열대성 폭풍, 파키스탄의 홍수 등 재난에 대한 지원 △ 북한·방글라데시·네팔·아프가니스탄·부룬디·레소토·짐바브웨·모잠비크 등의 국가에 대한 식량지원을 제공함.

⑦ 봉사단 파견

- 교육, 보건 및 기타 사회개발 부문에 봉사인력을 파견하는 원조방식임.
- 2002년 5월 라오스에 5명의 봉사단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태국, 에티오피아, 라오스, 미얀마, 세이셸제도, 라이베리아, 가이아나 등의 국가에 지속적으로 봉사단을 파견해 왔음.
- 2009년까지 19개 개발도상국에 총 450명의 봉사단을 파견하였으며, 70개 이상의 국가에 총 7,590명의 중국어 교사를 파견함.

⑧ 부채탕감

- 만기가 도래한 무이자 채권에 대해 변제능력이 없는 최빈국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중국정부는 2000년부터 아프리카 최빈국을 대상으로 부채탕감을 확대해 옴.
- 2009년 말 현재 중국은 아프리카·아시아를 포함하여 50개 국가에 380건의 부채탕감을 제공하였으며, 총탕감액은 255.8억 위안(약 39.5억 달러)에 달함(표 6 참고).
-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9년 말 현재 두 지역에 대한 총탕감액은 각각 186.9억 위안, 59.9억 위안에 이룸.

표 6. 중국정부의 부채탕감액(2009년 누계)

지역	국가 수	탕감액(억 위안)
아프리카	35	186.9
아시아	10	59.9
중남미, 카리브 연안	2	4.0
대양주	3	2.3
총계	50	255.8

자료: 「중국대외원조 백서」(2011. 4. 21).

라. 중국 원조의 지역별·부문별 분포

-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및 카리브 연안국, 대양주 등의 개발도상국에 대외원조를 제공하고 있음.

- 중국은 1950~2009년까지 총 161개 국가와 30개 국제기구에 대외원조를 제공해 왔으며, 그중 123개 국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외원조가 이뤄지고 있음.
- 중국의 대외원조 대상국은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로서 각각 32.8%, 45.7%를 차지하고 있음.⁷⁾

표 7. 지역별 분포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남미, 카리브 연안	대양주	기타	합계
45.7%	32.8%	0.3%	12.7%	4.0%	4.5%	100.0%

자료: 「중국대외원조 백서」(2011. 4. 21).

■ 중국은 수원국과 공동으로 다양한 부문에 걸쳐 인프라 건설을 시행해 왔음(표 8 참고).

- 중국은 1950~2009년까지 수원국의 생산 및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공업, 기계, 화학, 금속 등 공업 분야에 대해 688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해왔음.
- 그 외 교통, 통신, 전력 등 경제기반시설과 학교 건설, 중국어 교사 파견 및 양성 등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활발함.
- 한편 친환경에너지 및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원조를 진행하기 위해 2000~09년 동안 총 50여 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메탄가스, 태양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음.

표 8. 중국 대외원조의 부문별 분포

부문	주요 내용
농업	• 농업과 농촌의 발전, 빈곤인구 감소를 위해 농기구, 농업가공설비 관련 제품의 개발 지원 • 농업발전 자문 및 농업전문가 양성, 대량의 농기구 설비 등 농업용 물자 제공 • 2009년까지 수원국과 공동으로 221개 프로젝트 수행
공업	• 경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금속공업 등 공업분야에 원조 수행 • 2009년까지 수원국과 공동으로 688개 프로젝트 수행
경제기반시설	• 교통, 통신, 전력 등 기초인프라에 대한 원조 수행 • 2009년까지 수원국과 공동으로 442개 프로젝트 수행
공공시설	• 시정부청사, 민간시설, 우물, 회의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건설 • 2009년까지 수원국과 공동으로 687개 프로젝트 수행
교육	• 학교 건설, 학습교재 제공, 중국어 교사 파견 및 중국 내 중국어 교사 양성, 장학금 제공 등 • 2009년까지 수원국과 공동으로 130여 개 학교 설립 • 119개 국가의 유학생 70,627명에게 각종 전문교육 제공
보건위생	• 병원·보건위생센터·질병방지센터 건설, 의료단 파견 및 의료인 양성,약품 및 의료물자 제공 • 2009년까지 100여 개의 병원 및 의료서비스센터를 수원국과 공동으로 건립 • 대량의 의료설비와 약품 제공
친환경에너지 및 기후변화	• 2000~09년 동안 50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메탄가스, 태양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 이용 개발 •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분야에서 1,400명의 훈련인원 양성 중

자료: 「중국대외원조 백서」(2011. 4. 21).

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은 빈곤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중국 대외원조의 약 80%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3. 평가

- 중국이 백서의 서문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⁸⁾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스스로를 ‘공여국’ 이 아닌 ‘개발도상국 파트너’ 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개발도상국과 동등한 상호협력을 통한 발전을 강조함으로써 남북협력(North-South Cooperation)에 기반한 공여국-수원국 관계보다 포괄적인 원조의 개념을 제시함.
- 중국은 아시아-아프리카 등의 최빈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플랜트 사업과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수원국의 민생안정과 경제발전을 목표로 원조를 제공해 옴.
- 중국이 이번 백서에서 공개한 대외원조 사업에 관한 내용은 개발도상국 간 상호호혜와 윈윈 효과, 개발도상국 간 지식교환, 지식 및 기술 이전, 학습효과 등을 목표로 하는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의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음.
- 중국의 ODA에 대한 정의는 OECD 개발협력위원회(DAC)를 중심으로 한 공여국 간 통용되고 있는 정의⁹⁾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대규모 경제협력 자금과 연계한 패키지 방식의 원조가 주를 이루고 있어 기존 공여국의 원조방식과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해석할 필요가 있음.
-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수출신용, 기타공적자금(OOF: Other Official Flow) 등과 연계된 혼합신용방식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을 도모함.
- 또한 중국 상무부에서 지원하는 무이자차관과 수출입은행에서 지원하는 우대차관 형태를 활용한 경제협력 성격을 띠는 원조비중이 높고, 지원조건에 대한 공표된 기준이 없어 일반적인 ODA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이번 백서 발간은 중국정부가 최초로 공개한 공식적인 원조 관련 정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제시된 자료가 국제적인 원조통계 수집기준에 미비하여 원조사업별 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DAC 등 국제적인 원조통계 기준¹⁰⁾에 따르면 공여국 및 수원국에 관한 기본정보, 공약액 및 지출액, 사업 관련 정보, 지원기준 및 상환조건, 지원사업별 원조목적 분류코드, 다부문 이슈(Cross-cutting issue) 포함 여부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어야 함.
- 이번 백서는 그동안 다양한 자료를 통해 추정되었던 중국의 대외원조 규모와 지역별·산업별 분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연간 원조규모, 사업단위별 지원규모 및 구체적인 사업 관련 정보가 미비함.

8) 백서의 서문은 “China is a developing country”라는 문장으로 시작함.

9)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공여국의 공공부문이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한 자원흐름(resource flows) 중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ODA라고 정의함. ① 공여의 주목적이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증진일 것, ② 증여율(grant element: 공여재원의 무상정도를 나타내는 조건으로 차관액과 차관원리금의 현재 가치의 차이로 계산)이 25% 이상일 것, ③ DAC 수원국 명단에 속해 있는 개도국을 주요 수혜대상으로 할 것.

10) OECD DAC Aid Statistics 내용 참고

- 중국의 원조는 투명성 부족, 비공개성, 독자적인 원조방식, 무조건적인 대규모 차관지원 등으로 인해 국제원조사회에서 ‘불량원조(rogue aid)’¹¹⁾라는 비판을 받아 왔음.
- 이번 백서 발간은 중국이 이와 같은 논란과 비난에 대응하고, 중국 원조의 당위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의 원조정책 입안 및 사업시행 과정에서 국내외적인 지지를 획득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백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서구 공여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원조체제와 개발도상국 간 협력에 기초한 중국 원조 간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강조되고 있어 기존 국제 원조체제와는 다른 틀에서 중국의 대외원조를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원조는 국제 원조규범과 조화, 투명성 제고, 공여국 간 협력 및 조정 강화, 성과 평가체제 구축 등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안고 있으나 최근 중국이 DAC 등 국제기구와 파트너십¹²⁾ 구축, 일본 등 다른 공여국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중국과 아시아 역내의 개발협력 기반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중국 원조집행기관과 협력, 공동 워크숍 및 세미나, 학술교류 등을 통해 중국과 원조정보 공유와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사업평가, 공동사업 발굴 및 삼각협력¹³⁾ 방식의 원조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개발협력회의’는 아시아 주요 공여국 간 최초의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아시아의 개발경험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역내 개발협력 체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됨.
- 중국의 경우 한국의 DAC 가입 경험, 원조사업 관리 및 평가 모니터링 체제 및 방법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원조기관 간 정보공유와 경험 및 기법전수를 위한 공조체제 구축이 시급함.
- 또한 아프리카 지역의 양국간 협력사업, 개발경험 모범사례 구축,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연계한 ODA 추진방안 마련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상호협력이 가능함. KIEP

11) Naim, M.(2007), “Rogue Aid,” *Foreign Policy*, 159, p. 96.

12) 중국 국제빈곤감소센터(IPRCC)의 제안에 따라 2009년 1월 시작된 China-DAC Study Group이 대표적인 예임.

13) 개발도상국 간 경제, 사회개발 및 집단적인 자립을 목적으로 한 상호협력 활동인 남남협력 구도에 북측 공여국이 재정,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협력방식을 의미함.